

프란시스코페러와근대학교

엠마골드만

엠마골드만
프란시스코페러와근대학교
1910 년

이 글은 엠마 골드만이 1910 년 『아나키즘과 그 외 에세이들 Anarchism and Other Essays』 이라는 제목으로 펴낸 책에 실린 에세이다.

한국어 번역은 『저주받은 아나키즘』 (김시완역, 우물이 있는 집, 2001) 이라는 다소 엉뚱한 제목으로 출판되었으나 현재는 절판되었다.

엠마 골드만의 에세이들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하나의 문건으로 취급하게 되어 여기서는 〈프란시스코 페러와 근대학교〉 만을 옮긴다.

인생살이에서 최고의 경험은 학교이다. 학교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지 못한 사람을 좀 열등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계속 실수를 범하는 조직적인 제도와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가 목인한다. 참 이상한 현상이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프란시스코 페레 (Francisco Ferrer) 라는 이름을 가진 사나이가 살고 있었다. 그는 학교 선생님이었고 스페인 사람들은 이 선생님을 잘 알았고 사랑했다. 스페인 외부에서 페레의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선생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1909 년 9 월 1 일 스페인 정부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요청으로 프란시스코 페레를 체포했다. 10 월 13 일 형식적인 재판을 거친 후 페레는 몬주의 감옥에 갇혔다. 그곳은 수많은 사람들의 한숨이 배어 있는 가혹한 감옥이었다. 여기서 그는 총살당했다. 이로 말미암아 그 저한 사람의 선생님이었던 페레는 국제적인 인물이 되었다. 이 불법적인 살인에 대해 전 세계의 문화된 사람들은 분노와 적개심을 표현했다.

프란시스코 페레를 죽인 것이 스페인 정부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저지른 첫 범죄는 아니었다. 스페인 정부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역사는 길고 긴 피와 불의 역사이다. 저들은 그 경험을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있었다. 교회와 국가가 힘 없는 자를 죽이면 더 강력한 거인이 탄생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이 거인이 언젠가는 이 가혹한 억압에서 자유로운 인간의 삶을 실현시킬 것이다.

프란시스코 페레는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1859 년에 태어났다. 부모님은 로마 가톨릭 신자였고 아들이 신실한 로마 가톨릭 신자로 자라기를 부모님은 소망했다. 부모님은 이 아이가 훗날 위대한 진리를 알리는 선구자가 되어 구습을 따르기를 거부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어린 나이에 페레는 조상대로 믿어 온 신앙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선량함과 사랑을 이야기한 하느님이 어떻게 무고한 아이를 괴롭힐 수 있는지 알고 싶어했다. 어떻게 교회에서 고문과 고통과 지옥과 같은 무시무시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각성하고 문제를 파헤

회가탄생했다. 이협회의목적은페리의전생애를책으로출판하고미국전역에페리식근대학교를세우는데있다. 이런국제적혁명의파도를보고누가페리가헛되이죽었다고말하겠는가?

몬주익에서의그의죽음은참으로훌륭하고극적이고인간의심장을뒤흔드는사건이었다. 당당하고꽃꽂한내면의눈이빛을향하는프란시스코페러에게는거짓된성직자도필요없었고그를저버리는망령을비난할필요도없었다. 사형집행인들은죽어가는시대이고자신은살아있는진실이라는의식은그마지막영웅적인순간까지도변함없이계속되었다.

죽어가는시대와살아나는진실,
그살아남이죽음을묻으리라.

친결과오래지않아이가공할검은괴물의실체가바로로마가톨릭교회라는사실을발견했다. 페리는로마가톨릭교회와완전히결별했다.

프란시스코페러는진리에대한회의론자이면서진리를찾는구도자였다. 또한반골이기도했다. 그의정신은조국스페인의철권통치에대한분노로타올랐다. 용감한애국지사빌라캄파 (Villacampa) 장군이이끄는일단의반란군이공화주의의깃발아래스페인정권을공격했을때젊은프란시스코페러는누구보다도열정적으로이투쟁에앞장섰다.

이들의공화주의이상을미국의공화주의와혼동하지않기바란다. 아나키스트로서나는라틴국가들의공화주의자들에전적으로찬성하지않지만이들의이상은부패하고반동적인미국의정치집단들보다는고상하다는사실은안다. 미국에서는바로이런부패한반동적집단이자유와정의를모두파괴하고있다. 마치니와가리발디의추종자들은진보와자유주의의최초의적이었지만그들의노력이전제주의의전복을성취해냈다는점을사람들은깨닫고속고해야한다. 미국은바로그반대였다. 공화주의는기득권세력, 제국주의, 독과점, 모든자유주의세력을절멸시키는편에섰다. 그이상 ideal 은느끼한맥킨리 (McKinley) 였고오만하기짝이없는루스벨트 (Roosevelt) 였다.

스페인의공화주의투사들은진압되었다. 오랜세월동안굳어진바위같은, 히드라같은괴물로마가톨릭교회와스페인왕권의골수를깨부수기에한번의노력은역부족이었다. 이소규모집단의영웅적행동에는체포와박해와처벌이따랐다. 이추적을피할수있었던사람은안전한곳을찾아해외로나갔다. 프란시스코페러도이들과함께해외로도피했다. 그는프랑스로갔다.

새로운땅프랑스에서그의정신은얼마나확장되었던가! 자유와이상과실천의요람프랑스! 파리는우울한구식의그림자를건고늘썩음으로활기차고불뚝이며, 생명의맥박이힘차게뛰는곳이었다. 파리는페러에게신선한영감을주었다. 이런분위기에서젊은이상주의자는멋지게성장했다.

프란시스코페러는시간을허비하지않았다. 굶주린사람처럼자신을다양한자유주의운동에던졌다. 온갖류의사람들을만나고많은것들을배우고흡수하면서그의사상은성장했다. 파리에머물면서페러는근대적학교의운영상황을보았다. 이때의경험이페러의인생에결정적으로중요한역할을했다.

프랑스에서의근대적학교는규모는작았지만페러가오기 훨씬전에설립되었다. 첫근대적학교의창설자는따뜻한정신의소유자루이즈미셸 (Louise Michel) 이었다. 의식적으로든무의식적으로든우리의위대한루이즈는오래전에미래는젊은세대에달려있다는사실을감지했다. 그래서젊은이들을파괴적인제도, 곧부르주아학교로부터구해내지않으면서사회악은계속존재하게될것으로인식했다.

노르웨이극작가입센 (Henrik Johan Ibsen) 과함께루이즈는당시 사회분위기가유령에게짓눌려있고, 어른들은너무나많은미신에서로잡혀있다고생각했다. 하나의유령을타도하면 99 개의다른유령들이나타났다. 이유령들을다물리치고완전히다시태어나는사람을소수에불과했다.

하지만어린이에게는극복해야할전통이나인습이없다. 어린이의마음은과거의이념으로짓눌려있지않고어린이의가슴은계급적차별에멍들지않은상태다. 아이는조각가가점토로조각품을만들듯선생님이만들기나름이다. 결국어린이라는미완의세계가예술작품이되느냐아니면별볼일없는모조품이되느냐는가르치는선생의창조적힘에달려있다.

루이즈미셀은어린이의마음을조각하는데아주뛰어난재능을지녔다. 루이즈자신이어린이와같은천진한천성을지녔기때문이다. 그는따뜻하고부드럽고세속에물들지않았으며온화했다. 루이즈의마음은사회적부정을볼때마다뜨겁게불타올랐다. 파리의시민들이사회적불의에항거할때루이즈는항상선두에섰다. 억압받는민중을위한헌신의대가로루이즈가감옥에서고초를겪고난후몽마르트르의작은학교는곧문을닫았다. 그러나이미씨앗은뿌려졌고, 프랑스의많은도시에서근대적학교가태동했다.

근대적학교를추진해나가는과정에서가장중요한역할을한사람은늘 젊은마음으로평생을산폴로뱅 (Paul Robin) 이다. 몇몇친구와함께그는파리근교의아름다운섬뽀 Cempuis 라는곳에서다란학교를하나세웠다.

그는부르주아식의유전개념은단지젊은이들의끔찍한범죄에대한사회적책임을회피하려는핑계에불과하다는사실을증명하려했다. 아버지의죄때문에고통받아야했던아이들이부모가유산을남긴것이없기때문에계속가난과도덕적타락속에서벗어날수없고술주정뱅이나범죄자로자랄수밖에없다는논리는폴로뱅의아름다운정신으로이해하기에는너무불합리한것이였다.

유전적요소도작용하겠지만다른요소들역시중요하다고그는생각했다. 유전외적요소들이더크지는않을지라도유전적원인을제거하거나최소화하는작용을다른요소들이할수있을것으로믿었다. 경제적·사회적환경이적절하고, 자연의자유를만끽하고, 적당한운동을하고, 사랑과동정심을배우고, 무엇보다어린이가필요한것에대해깊이이해해주면무고한아이에게부여되는잔인하고부정한범죄를저지르기쉬운요소들을없앨수있을것이다.

폴로뱅은소위최고의부모들에게서자란자기아이들을선택하지않았다. 그는가재도구를갖고다니며어디든필요한곳으로갔다. 거리에서오두막에서, 고아원과버려진아이들이모여있는곳과교회소와그밖의모든어두운사회적그늘에서일을했다.

아이들을집중적으로연구한과학자들의연구결과를우린따를겁니다. 우린열심히이런과학자들의경험을교육에접목시키고자합니다. 우리는개인을보다자유로운인간으로만드는방향으로교육을강화하고자합니다. 하지만이런목적을이런교육환경에서어떻게달성할수있을까요? 그래서우리가직접새로운학교를세우려고합니다. 이학교는자유정신이 지배하는학교가될것이고, 미래의학교는전반적으로우리가시도하는학교의형태가될것입니다.

현재까지시험적으로시행해본결과는아주 좋습니다. 현행학교에서문제가되고있는모든조직적규제와자연과생활을분리시키는모든인위적장벽들을우리는없앨수있습니다. 자연적분성을말살하고아이들에게기존의이념을주입하는지식교육과도덕교육을우리는폐지할수있습니다. 우리자신을기만한다는두려움이없는매력적인환경에서신이사랑하는모든것과접촉하게할수있으며, 그안에서삶에대한깊은감동이까다로운학문을대체하게할수있을것입니다. 우리가그것을하지못했다면어린이구제에있어서가장큰이부분을준비해야할것입니다.

이런조건에서만우린과학과노동의성취들을자유롭고풍성하게적용할수있을겁니다.

우리의모든희망을다이룰수없다는사실도잘압니다. 때로는지식의부족으로바람직하지않은방법을동원하기도합니다. 그러나우리는확신을가지고노력해야합니다. 우리의목적에완전히다르지않는다하더라도우리는현교육적성취에안주하기보다는불확실한작업을더욱해나가야합니다. 나는현교육의주제가되고있는세계적지식이나지적결함보다도사람들이아무것도아닌것으로알기쉬운어린이들의자유로운자발성을중요하게생각합니다.”⁵

페리가차라리폭동을조직해바리케이드를치면서싸우고폭탄을던졌다면, 처벌되고감금됨으로서오히려로마가톨릭교회측과독재정부측에그토록위험한인물이되지는않았을것이다. 처벌과구금은이세상모든악의배경이아닌가?

노예와순종과가난과모든불행과사회적불평등이다처벌과감금에서나온결과들이다. 페리는확실히위험한인물이였다. 그래서그는 1909년 10 월 13 일문주익의형장에서죽을수밖에없었다. 그러나누가감히그의죽음이헛되다고하겠는가? 전세계적으로분노의물결이있었다. 이탈리아에는페리의이름을딴거리들이생겨났고, 벨기에에서는기념비를세우는운동이생겼으며프랑스에서는혁명적순교자의전통에서가장계몽적인인물맨앞자리에그의이름을올렸다. 영국에서는최초로그의전기를발행했다. 모든나라가프란시스코페리의위대한업적을기렸다. 심지어진보적이념측면에서가장후진국인미국에서도프란시스코페리협

⁵ 「Mother Earth」, 1909 년 12 월.

페리가아이들에게부자들을공격할태세를갖추라고말했다고한다. 옛이야기에나오는마녀이야기일까? 페리는가난한자를구제할준비를하 도록아이들에게교육시켰다고하는게옳지않은가? 페리는아이들에게가 난은부끄럽고, 인간을타락시키는것이며, 무시무시한것이라고가르쳤 다. 가난은미덕이아니라악이라고했다. 그리고그는모든창조적노력은 존귀하며중요하다고가르쳤다. 이창조적노력만이삶을유지하고자기만 의특성을기른다고가르쳤다. 이런가르침이야말로그저남에게기생해사 는것이얼마나무익하고해로운지를가장효과적으로가르쳐주는것이아 닌가?

마지막으로중요한이야기하나만더하겠다. 페리는반군사적인념을 주입시키면서군대를해치려고했다는혐의를받았다. 정말일까? 페리도 톨스토이처럼전쟁이란합법적인살육이고, 전쟁은중오와교만을부채질 하고, 민족의정서를감아먹고, 전쟁에참여한민족을광란으로날뛰게만 든다는사실을믿은것은분명하다.

근대교육의이념과관련된그의말을들어보자.

“독자들은다음과같은이념에주목하시기바랍니다. 교육의모든가치 는아이의육체적·지적·도덕적의지라는측면에있습니다. 과학의경우사 실만으로과학의역할을하듯이교육도모든교조주의에서벗어나지않으 면안됩니다. 교조주의는아이들에게방향자체를고정시키고아이는그저 뒤만따르게만듭니다. 교조주의적목적을소멸시키는것은어렵지않습니 다. 오히려그런목적을준중하게만드는게더어렵습니다. 교육은항상의 무를부여하고, 위반했다고지적하고, 규제하는것이었습니다. 참된교육 자는선생자신의생각과성향에아이들이맹목적으로따르지않도록최선 을다해지도하는사람입니다. 아이자신의에너지를극대화하도록해줄수 있는선생이최고의선생입니다.

미래의교육은전적으로자발적인본성을발현하는교육이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그것을완전히깨닫고있지는않지만, 그것은아마삶 의현상에대한폭넓은이해의방향으로이루어지는방법적진보일것입니 다. 모든것은제약의극복을의미하는완전함을향해진보해간다는사실은 우리가과학을통해어린이의구제를희망할때바르게될수있다는것을가 리킵니다.

우리에게는끊임없이진보할능력이있습니다. 쉬지않고자기환경을 개척하고새롭게변모시킬수있습니다. 그러면서자기자신을새롭게합니 다. 인간에게는지적독립이가장큰힘입니다. 그런인간은다른것에기생 할필요가없습니다. 항상최상의것을수용하고새로운이념을승리로이끌 며행복해하고, 하나의생명이지만다양한삶을살수있는준비가되어있습 니다. 그런데사회는이런인간을두려워합니다. 따라서사회가언젠가는 우리에게아이들의교육을맡길날이올것이라희망해서는안됩니다.

이사회는양심이라고는없이그저사회적평안을위해가련한희생자들 을눈에띄지않는곳에처박아두었고, 로뱅은이들을찾아갔다. 로뱅은자 기가만든학교가수용할수있는한최대로, 더럽고버려지고추위에떠는아 이들을모아셈뮈로데려왔다.

이곳의아름다운자연에둘러싸여자유롭고제약을받지않는상태에서 아이들은잘먹고청결을유지하고깊은사랑과이해심을배웠다. 이어린식 물들은자신들의친구이자스승인폴로뱅의기대이상으로잘자라나꽃을 피웠다.

아이들은자립적이고자유를사랑하는사람으로성장했다. 일반사회 제도란가난한자를계속가난하게만드는끔찍한제도가아니고무엇인가. 셈뮈는프랑스에서는금지된남녀공학위반이라는이유로프랑스정부에 의해폐쇄되었다. 하지만그때까지운영된것만으로도모든선진적교육자 들은이런교육이충분히가능성이있다고인정하게되었다. 이런교육을통 해근대적교육방법에커다란자극제가되었고, 교육체제는조금씩그러나 필연적으로붕괴되었다.

셈뮈에이어유사한많은시도들이있었다. 이를시도한대표적인인물 들로는『자유로운사랑 l'Amour Libre』의천재작가이자시인인마 들레느베르네 (Madelaine Vernet) 와세바스티앙포레 (Sebastian Faure) 가있다. 포레는‘라루쉬 La Ruche’¹를지었는데나는 1907 년파 리에머물때이곳을방문했었다.

몇년전포레동지는라루쉬가세워진대지를사들었다. 비교적짧은기 간에그는황무지를꽃이활짝핀땅으로바꾸었다. 아주잘정돈된농장과같 은모습이었다. 세개의건물로둘러싸여있는커다란정방형마당이있고넓 은길을따라가면정원과과수원으로이어진다. 이길을따라방문객들이드 나든다. 이곳정원은많은식물들로장식되어있는데어떤종류의식물들이 라루쉬를장식하고있는지는오직한사람포레만이안다.

세바스티앙포레는아이가모순된영향력을동시에받으면결과적으로 발전에장애가온다고보았다. 오직물질적으로궁핍하지않고, 가정이위 생적이고, 지적인분위기가조화를이룰때아이는건강하고자유로운인격 체로자란다.

세바스티앙포레는자기가만든학교에관해다음과같이언급했다.

“나는 24 명의남녀학생들을데려왔는데이들은고아거나부모가있 어도너무가난해양육될수없는상황에처한아이들이었습니다. 내개인의 돈으로이들에게옷을입히고숙식을제공하고교육을시켰습니다. 12 살 이될때까지이들은건전하고기초적인교육을받았습니다. 12 살에서 15 살사이에도교육은계속되었는데각자의취미와능력에따라약간의직업 교육을받았습니다. 그이후에는라루쉬를떠나바깥세상에서자기삶을살

¹ 벌집이라는뜻.

자유가있었습니다. 물론다시돌아오고싶다면언제든지돌아올수도있지요. 부모가자식을맞이하듯돌아오는아이들을환영할생각입니다. 그리고아이들이우리학교에서계속일하기를원한다면다음과같은조건을따르면됩니다. 노동이익의 1/3 은기본비용으로계산된다. 1/3 은새로들어오는아이들의숙식을위해운영되는자금으로저축된다. 나머지 1/3 은개인용도로사용될수있다.

내가돌보는아이들의건강은완전했습니다. 깨끗한공기, 영양이풍부한음식, 야외에서의운동, 위생적인환경만들기, 짧은시간동안이루어지는흥미있는교육, 그리고무엇보다아이들에대한우리들의애정이런이해와보살핌으로아이들의육체적정신적건강상태는정말좋았습니다.

우리아이들이이룰수없는것을성취했다고주장하는것은온당치않습니다. 이전에좋은기회를얻지못했던보통의아이들이에도불구하고이들이얻은결과는매우만족스러운것이었습니다. 이들이얻은가장중요한것은, 보통학교의아이들에게보기어려운특징, 즉공부에대한애정, 알고자하는욕구입니다. 아이들은새로운공부방법을배웠습니다. 빨리암기하고상상력을자극하는공부법입니다. 우리는주변환경에대한아이들의흥미를일깨우는데시혈을기울였습니다. 관찰과조사와성찰의중요성을일깨워줬습니다. 그래야아이들이성장했을때귀머거리나소경의수준을면할수있습니다. 우리아이들은뭐든지절대맹목적으로수용하지않습니다. 항상탐구하는자세를갖고, 자신의의문이철저히해결될때까지자족하지않습니다. 아이들의정신은불완전하고불충분한해결책으로생기는의혹이나두려움에서해방되었습니다. 아이들의성장이방해되고자신감이결여되는이유는바로불완전한문제해결에있습니다.

우리아이들이서로에게얼마나솔직하고친절하고다정다감한지놀라울정도입니다. 라루쉬에서는아이들자신과어른들간의조화가너무나잘이루어집니다. 우리가단지어른이기때문에아이들이우리를존경하거나또는두려워한다면참으로슬픈현실입니다. 우리는아이들이사랑과자신감을갖도록최선을다했습니다. 의무를부과하기보다는이해를, 두려움대신에자신감을, 그리고엄격함대신애정을주었습니다.

아이들의정신속에동정심과친절함과관대함이얼마나풍성하게숨어있는지사람들은잘모릅니다. 참된교육자의노력만이이보물의문을열수있습니다. 아이들을자극하여최상의그리고가장고상한성향들을불러내는겁니다. 자연의식물이자연스럽게꽃잎을피우는것을보는것도큰보람이지만인간이라는식물이성장하여참된한개체로성장하는것을보는것자체가얼마나큰보상인지모릅니다.”²

역사교육과역전히계속되는옛날식교육방법에대해세바스티앙포레는이렇게말한다.

을깰수있는상황인데도그렇게하지못했다. 당국과법과사유재산이얼마나외경의대상이었는지자기의영혼을불태우면서도마음의준비가없어예상하지못한상화에서이것들을파기하지못했다.

이런자발적이고비조직적인행동에페레같은인물이연루됐을거라고누가생각할수있겠는가? 이런투쟁은결국패배, 처절한패배로끝날수밖에없다는사실을페레라면당연히알지않았을까? 아니, 그가직접참여했다면노련한지도자로서용의주도하게이봉기를조직하지않았을까? 이런모든증거가불충분하다면페레가무죄라는것을입증할다른결정적인증거를대보겠다. 그의무죄를입증할다른증거가많지만.

봉기가발발하던당일인 7 월 5 일페레는합리적교육연맹 League of Rational Educaion 소속회원들과선생님들과의회의를소집했다. 이회의는가을사업을논의하고특히엘리제르클뤼(Elisée Reclus)의위대한저서『인간과대지 L’Homme et la Terre』그리고포트르크로포트킨(Pyotr Alexeyevich Kropotkin)의『프랑스대혁명 Great French Revolution』출판문제를논의하는자리였다.

만약혹시라도페레가이봉기를알고그회의에참여했다면, 동료들이자신과함께있으면생명이위험할수도있다는걸알면서도이렇게친구들과동지들을그날바르셀로나로불러들었다면그는정말뻘뻘스러운냉혈한이아니겠는가? 하긴사악한마음을갖고있는로마가톨릭예수회의범죄자들이라면얼마든지의도적으로친구들을불러죽게만들수있다는생각을하고도남을것이다.

프란시스코페레에게는평생동안할일이있었다. 만약그가이봉기를지원하게되면그는자기모든계획을다잊고언을것이라고는파멸과재앙뿐인상황이었다. 페레는일반인의분노에담긴정의의심했기때문이야니라자기의일, 자기의희망, 자기의본성때문에라도그런일에관여할수없었다.

로마가톨릭교회측에서는온갖거짓과허위와중상모략을동원하면서광분했지만별소득이없었다. 로마가톨릭교회는과거이런더러운범죄에한번이상연루되어고초를 겪었던, 깨어있는양심적인물들로부터지탄을받았다.

프란시스코페레는아이들에게가장끔찍한이념, 곧하느님을미워하는것을가르쳤다고비난을받았다. 끔찍하다고? 프란시스코페레는하느님의존재를믿지않았다. 왜그가아이들에게존재하지도않는것을미워하도록가르치겠는가?

그는아이들을데리고나가장엄한일몰광경을보여주고별이빛나는하늘을감상하게하고, 경외로운산과바다를구경시켜주었다. 그는단순한방법으로모든생명의성장과발전과상호관계를설명해주었다. 이렇게하면서로마가톨릭교회의사악한잡초가아이들의마음에영원히뿌리를내리지못하도록했다.

² 「Mother Earth」, 1907.

1909년 10월 13일 페리의 마음은 너무나 답대하고 강인하고 성실하고 고요했다. 바보같은 사람! 페리의 마지막 고통스러운 맥박은 꺼져가고 있다. 그때 문명화된 세계에서는 그의 맥박이 고동치고 있었다. 그 맥박 소리가 엄청난 천둥소리로 커져 온밀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에게 저주처럼 울렸다. 검은 옷을 걸치고 경건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성적 자살인 자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라!

프란시스코 페리는 반군사봉기에 참가했는가? 마드리드의 로마가톨릭 신문에 실린 첫 번째 기사에 따르면 그는 전혀 봉기에 참여했다고 기소된 것이 아니었다. 이 기사에는 바르셀로나의 대주교와 모든 고위 성직자들이 서명했다. 이 기사장의 핵심 내용은 프란시스코 페리가 무신론 학교들을 조직하고 무신론 문헌들을 배포한 죄를 언급했다. 그러나 20세기에 무신론적 신념 때문에 화형당하는 일이 있을 수 없었다. 무언가 다른 조치가 필요했다. 그래서 봉기를 선동한 혐의가 추가되었다.

지금까지 알아본 어떤 권위 있는 자료에도 페리가 반군사봉기와 연루되었다는 증거는 단 한 건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당국자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다. 확실히 72명의 증인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 증인들과 페리는 단 한번 대면한 적도, 함께 있던 적도 없다.

페리가 그 봉기에 참여했을 거라는 심증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그 이유는 이렇다. 프란시스코 페리는 훌륭한 선생님이었을 뿐만 아니라 의심할 바 없이 뛰어난 조직가이기도 했다. 1901~1909년까지 8년간 그는 스페인에 109개의 학교를 만들고, 자유의식이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 자유로운 학교 free school 를 308개나 별도로 만들게 했다. 학교 일과 관련해서 페리는 현대적인 인쇄 기기를 도입하고 전문 번역가들을 조직하여 가장 이성적이고 근대적인 과학 저술과 사회학 저작 15만 부를 배포했다. 이렇게 가장 뛰어난 조직가가 어리숙한 짓을 할 리는 없다.

그리고 완전히 확인된 사실 하나는 그 반군사봉기가 전혀 조직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반군사봉기는 이전의 많은 혁명 사건들처럼 대중이 우발적으로 일으킨 사건이다. 일례로 바르셀로나 대중들은 4일 동안 장악하여 통치했는데, 관광객들의 말에 따르면 기존의 평화나 질서가 전혀 붕괴되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일반 시민들은 아무런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권력을 잡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는 1871년 파리 코뮌 시절의 파리 시민도 마찬가지였다. 그때의 파리 시민도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 이들은 굶어 죽으면서도 식량이 가득한 창고를 지키고 있었다. 또 프랑스 은행을 지키기 위해 파수꾼을 세우기도 했다. 이 프랑스 은행은 부르주아가 훔친 돈을 보관하는 곳이 아닌가. 바르셀로나의 노동자들도 역시 자기들을 지배했던 자들이 착취해 축적한 재산을 지키고 있었다.

이 얼마나 전형적인 패배자의 애처로운 어리석음인가! 참으로 비극적인 모습이다. 일반인들을 억압하는 족쇄가 뼈속까지 깊이 박혀 있어 그 속박

“우리 아이들에게 참된 역사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참된 역사는 인간성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다 이름도 없이 죽어간 자들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³

프란시스코 페리는 이런 근대적 학교 교육의 시도를 받아들였다. 그는 근대 교육의 가능성을 보았다. 이론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로마가톨릭 성직자들과 군인이라는 이중의 굴레를 벗어던지기 위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스페인에 이런 학교가 필요했다.

스페인의 전반적 교육 체계는 로마가톨릭 교회의 손아귀에 있다. 로마가톨릭의 교육 원칙은 이렇다. “아홉 살이 지나면 다른 사상에 물들기 때문에 그 전에 아이들의 마음에 로마가톨릭을 주입시켜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페리는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새로운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커다란 무감을 느꼈다. 마침내 운명적으로 페리는 자신의 원대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지원을 받는다.

프란시스코 페리의 제자인 뫼니에부인 (Mlle. Meunier) 이 페리의 근대적 학교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녀가 죽었을 때 페리에게 약간의 소중한 재산과 학교 기금으로 매년 1만 2천 프랑의 수입을 남겼다.

무엇 눈에는 무엇만 보인다는 속담이 있다. 로마가톨릭 교회는 자신들의 비열한 죄악을 정당화하기 위해 페리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열한 방법을 동원하였다. 즉 페리가 뫼니에부인의 돈을 소유하려고 그녀와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짓 소문이 미국 로마가톨릭 계 신문마다 실렸다.

한 남자와 여자의 친밀한 관계는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문제, 그들만의 성스러운 관계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페리와 관련되어 유죄 판결된 무수한 거짓 말 중에 뫼니에부인과 관계가 거짓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로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조금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물론 로마가톨릭 성직자들의 위선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 문제의 진실을 이해할 것이다. 로마가톨릭 성직자들은 여성을 성적 상품으로만 보지 않는가? 수녀원과 과수도원에서 벌어진 역사적 자료들을 보더라도 이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로마가톨릭 성직자들은 남자와 여자의 협력을 성적인 것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 뫼니에부인은 페리보다 꽤 나이가 많았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인색한 아버지와 순종적인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어린 시절의 사랑과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프란시스코 페리는 기계처럼 학교에서 졸업장이나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는 일에 천재적 재능을 타고난 참된 스승이었다.

교육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추었고, 무엇보다 가르치는 일에 대한 불타는 소명의식으로 무장한 우리의 동지 페리는 스페인으로 돌아와

³ Ibid.

필생의사업을시작했다. 1901년 9월 9일 첫번째 근대적 학교가 문을 열었다. 이 학교를 바르셀로나 시민들은 열광적으로 반기며 지지했다. 개교식 때 짧은 연설을 통해 페러는 자신의 계획을 동료들에게 펼쳐보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연설자도 선동가도 투사도 아닙니다. 나는 선생입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아이들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위한 나의 헌신으로 젊은 세대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의 동료들은 로마가톨릭 교회 측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재고해달라고 페러에게 당부했다. 로마가톨릭 교회 가반대자에 대해 어떤 짓을 할지 잘 알았기 때문이다. 페러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페러는 과거의 학교처럼 번지르르한 거짓말에 불과한 교육 목표를 내세우면서 근대적 학교를 세울 마음이 없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솔직담백하고 공개적이고자 했다.

프란시스코 페러는 로마가톨릭 측에 찍힌 인사가 되었다. 학교를 여는 첫날부터 그는 감시를 받았다. 학교 건물도 감시 대상이었고, 만가트 Mangat 에 있는 그의 작은 집도 감시당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미행이 따랐고 심지어 프랑스와 영국에서 동료들을 만날 때도 감시가 붙었다. 숨어있는 적이 올라가미를 당기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페러는 알폰소 (Alfonso XIII) 암살 기도 사건이 있었던 1906년 거의 체포될 뻔했었다. 그러나 페러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증거가 너무나 분명해 이 검은 까마귀⁴들도 어찌할 수 없었다. 로마가톨릭 측에서는 일단 페러를 놔두기로 했다. 그들은 때를 기다렸다. 적들은 희생자가 걸리도록 덫을 놓고 그릇하게 기다렸다.

마침내 1909년 7월 스페인에서 반군사봉기가 발발했을 때 페러를 잡을 기회는 왔다. 봉기는 혁명 역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반군사주의적 항거였다. 수세기에 걸쳐 군홃발에 짓밟힌 스페인 국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국민들은 군인들의 무익한 학살에 동참하기를 거부했다. 용감한 리프 Riff 죽이자기들의 독립을 위해 싸웠듯이 독립을 위해 스페인 정부에 항거하는 소수 민족을 짓밟고 억압하는 스페인 독재 정부를 지원할 이유가 없었다. 스페인 국민들은 소수 민족을 향해 총을 들라는 정부의 요구를 거부했다.

1천 8백년 동안 로마가톨릭 교회는 평화의 복음을 설교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실제로 이 복음을 실천하려고 하자 로마가톨릭 측은 국민들에게 총을 들게 하라고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그리하여 스페인 왕조는 러시아 왕조가 그랬듯 살인적인 방법을 취했다. 국민들은 강제로 전쟁터로 끌려나갔다.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 이전까지 가만히 있던 스페인 노동자들이 자본가에게 대들었다. 거머리처럼 노동자들의 힘과 생명과 피를 빨아먹는 자들에게 대항했다. 그랬다. 스페인 국민은 교회와 성직자들을 공격했다. 그러나 저들 수천명의 목숨이 날아간다고 해도 스페인 국민에게 저지른 엄청난 폭행과 범죄의 대가를 다 치를 수 없었다.

프란시스코 페러는 1909년 9월 1일에 체포되었다. 10월 1일까지도 페러의 친구들과 동지들은 페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다. 10월 1일 한 통의 편지가 아나키스트 단체인 루마니테 L'Humanité 에 전달되었다. 이 편지를 통해 페러에 대한 재판 갈지도 않은 재판의 전모를 알 수 있었다. 10월 2일에 페러의 동료 솔레다드 빌라프란카 (Soledad Villafranca) 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다.

“걱정할 필요는 없네. 자네도 알다시피 난 전혀 혐의가 없어. 오늘날 특 biệt히 기쁘고 희망에 차있네. 오늘에서야 자네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는데. 내가 체포된 이후 처음으로 일광욕도 할 수 있었네. 내 감방창으로 따듯한 빛이 들어오거든. 자네 역시 즐겁게 지내야 하네.”

불쌍하게도 페러는 10월 4일까지도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다. 더욱 불쌍한 사실은 페러의 친구들과 동지들도 로마가톨릭 교회라는 적이 정의감을 갖고 있을 거라고 믿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사법부를 다시 한번 믿은 결과 형제의 죽음을 자기 눈앞에서 목도하게 되었다. 이들은 페러를 구할 준비조차 못했다. 항의조차 하지 못했다. 전혀 못했다. 왜? 페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었으니까. 그는 무죄였으니까.

그러나 로마가톨릭 교회는 뭐든 할 수 있었다. 로마가톨릭 교회에는 사법부라는 숙련된 측근이 있었다. 로마가톨릭의 적을 재판하는 것은 최악으로 정로운 재판이 되었다.

10월 4일 페러는 루마니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1909년 10월 4일 감방에서,

사랑하는 친구들, 나의 절대적인 무죄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사형을 구형하고 있네. 그 근거는 경찰을 비난했다는 것과 내가 세계 아나키스트의 괴수로 프랑스의 노동조합 결성을 지시했고, 세계 곳곳의 반란과 음모에 연루된 죄가 있다는 것이야. 내가 런던과 파리로 여행한 것도 다 이런 목적과 연관되었다고 말하더군.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나를 죽이려 하네.

심부름 할 사람이 곧 떠나려 하네. 시간이 없군. 경찰이 재판관에게 제출한 모든 증거는 거짓말과 중상 모략으로 가득한 휴지 조각에 불과하네. 나를 해칠 증거가 없는 데도 아무 소용이 없어.

페러”

⁴ 로마가톨릭 성직자들.